

손안의 책 한 권 세상을 만나다

'9월 독서의 달' 광주 공공도서관들 다양한 행사

'손안의 책 한 권 세상을 만나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광주지역 공공도서관들이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 책과 함께 즐거운 세상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월호 잡지를 나눠주는 '과년도 잡지 배부' 행사와 열람가능한 DVD를 행가기간(6일~12일) 대출해주는 'DVD 1박2일의 외출' 행사를 열고있다.

사직도서관은 9월 한달간 매주 화요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서가 읽어주는 동화책',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선정해 들려주는 '필리핀 엄마가 들려주는 영어동화'(12·26일)를 진행하며, 그림동화속 주인공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동화속 주인공이 되어봐!' 행사도 준비했다.

함께하는 행사로 동화구연·영어동화구연(12·19·26일), 요리와 함께하는 동화여행(26일), 일요일과 만나는 영화 상영(6·13·20·27일)을 준비했다.

◇ 책 나눠주고 읽어주고 사진찍기 등 다채 동화·시인·소설가들 초청 '만남의 시간' 그림책·베스트셀러·그림동화 전시회도

일곡도서관은 깜짝 이벤트 독서행사 '책과 즐기는 신나는 숲박꼭질'을 비롯해 '빛그림 동화상영'(12일), '친구들이 이야기교실로 모여라'(23일까지) '동화책 읽어주기'(26일)를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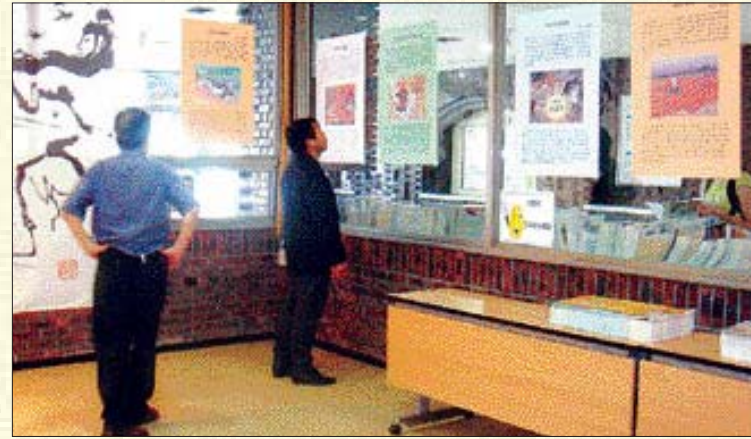
'고전소설과 영화, 영화상영'(4~26일)도 펼쳐진다. 광주서구공공도서관은 독서퀴즈대회를 준비했다. 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대회는 지정한 책을 읽고 독

일에는 고재중 시인 초청, '문학작품 낭송회'가 예정돼 있다. 사직도서관은 23일 동화작가 이성자씨(광주대 문창과 교수)를 초청 '문학과 어린이 정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일곡도서관에서는 8일 오후 7시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리산 시인' 이원규 시인과 함께 시와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원규 시인의 만남' 시간을 준비했다. 광주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11일 소설 '내 심장을 쏴라'의 작가 정유정씨를 만날 수 있다. '사라지지 않는 노래'의 작가 배봉기(광주대 문창과)교수를 직접 찾아가 만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26일)와 이성자, 안점옥, 최유중, 이현서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작가 사인회(26일) 시간도 마련했다.

장독서목록을 비치했으며 7일부터 15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직도서관은 14~30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신기한 입체도서 전시 '살아있는 팝업북전'을 갖는다. 산수도서관에서는 25일까지 우리나라 동시작가 8명에 대한 작가 설명회와 판별을 전시한 우리나라 동시작가 알기전과 동화 '동강의 아이들' 원화 10점을 전시하는 '한권의 책' 전시회가 열린다. 일곡도서관에서는 '점하나 회원전'(16일까지) '시대별 베스트셀러 도서 모음전'(16~25일) '무지개빛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공공도서관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광주시립 무등도서관은 오는 15일까지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그림책 원화전시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립무등도서관 제공>

수채화전'(17~28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림동화전'(22~30일) 등이 일곡갤러리와 도서관 자료실에서 열린다. 한편, 광주시립도서관 주관으로 19일 열기로 했던 '좋은책 둘러보기 장터' 행사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취소하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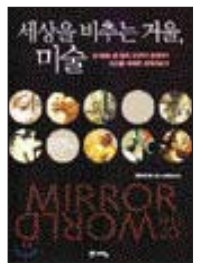
원시~현대 '미술사' 통찰 '세상을 비추는... 미술' 출간

원시 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세계 미술사를 거시적으로 통찰한 미술사책 '세상을 비추는 미술'이 출간됐다.

미술평론가이자 화가로도 활동하는 줄리안 벨이 런던미술학교 '시티엔 길드'에서 한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으로 연대기 순으로 세계 각국의 미술사를 설명한다.

12개 장으로 나눠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되 동서양을 넘나들고, 미술작품의 위상보다는 정치·사회·종교적 변화와 어우러진 콰브리치의 책이 서양미술 중심이었던 데 반해 서양과 유럽 중심의 미술사를 극복하고 동서양의 미술을 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간 중간 한국 미술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예매 5만5천원>

500쪽에 이르는 두툽한 분량에 352점의 도판을 곁들여 미술사의 고전인 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콰브리치의 책이 서양미술 중심이었던 데 반해 서양과 유럽 중심의 미술사를 극복하고 동서양의 미술을 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간 중간 한국 미술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예매 5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9월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어느덧 1년

매달 둘째주 금요일 광주 호남신학교에 자리잡은 카페 '티 브라운'에서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확장 시절 음악시간에 즐겨 부르던 '성불사의 밤', '그네', '비목' 등을 함께 부르며 참가자들은 아련한 추억에 빠진다.

매달 한차례씩 모여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옥)가 어느덧 일년을 맞았다.

국내 최대 인터넷 가곡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 '내마음의 노래(www.krsong.com)'에서 활동하는 지역 출신 애호가들이 의기투합해 꾸린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이하 우리가곡 부르기)는 박원자(시인·조봉조 교사), 박진영(피부와 원장), 김형수(이비인후과 원장), 이용우(국립광주박물관)씨 등이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곡부르기 모임에는 매달 약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억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등의 코너를 통해 친숙한 가



월 1회 150여명 카페 '티 브라운'에 모여 행사 문병란·허형만·김승일 등 시인·작곡가도 함께 11일엔 챔버스 싱어즈·황성철씨 등 특별무대

곡을 함께 부르고, 매번 모임 때마다 성악가 최석부씨의 지도로 새로운 가곡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노랫말을 쓴 시인들과 작곡가들이 직접 출연해 시를 낭송하고, 자신의 시로 만들어진 노래를 함께 부르고 배

우기도 한다. 지금까지 작곡가 김승일·구희영·한만삼·황덕식·국현씨 등 작곡가와 전원범·문병란·손광은·허형만 등 시인들이 다녀갔다. 또 김백호·김미옥·이화희·박미애씨 등 성악가들도 초대됐다.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1주년 기념 연주회에서는 지금까지 모임 때마다 함께 불렀던 170여곡 가운데 '남이 오시는지', '청산에 살리라', '애모', '사랑의 강물', '선구자' 등 6곡을 함께 부른다. 또 광주챔버스 싱어즈와 소프라노 김해미, 바리톤 황성철씨가 출연, '비목'과 '신아리랑' 등을 선사한다.

황선옥 회장은 "모임을 만든지 1주년을 맞아 함께 노래 부르며 즐겨왔던 추억들이 떠오른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정서가 담겨 있는 우리 가곡을 부르면서 모두 행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cafe.daum.net/gjksong. 문의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승희 아쟁 연주회 ▶ 10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가을을 맞아 다시 공연을 시작한 서구빛고을 국악전수관 '복옥 열린국악한마당'이 최승희 초청 연주회를 개최한다. 10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이번 연주회에서 최씨는 아쟁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박종선류 아쟁산조 전바탕과 장중하고 화려한 궁중음악 '수제천'을 들려준다.

전주시립국악단 아쟁 수석단원으로 활동중인 최씨는 전주우석대를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 국악학과 박사과정에서 수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번 공연에는 신현정·박종석·이인황씨 등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 시낭송회

10일 지하철 상무역 무대

광주시낭송가회(회장 이미영)가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 광주지하철 상무역 상설무대에서 '제9회 빛고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를 연다. '태양이 꽃을 물들이듯 시(詩)는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듯'라는 주제로 문학동인 무등문화회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양봉모씨 사회로 진행된다. 이국환(시인)씨의 기타연주와 회원들의 시낭송으로 가을의 길목에선 설렘을 노래할 예정이다. 이숙자·방영남·속대순·김혜경·박형자·이기환·김혁순·장진규·이슬아·정영숙·이미영씨가 나서 시를 낭송한다. 문의 010-3666-30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계좌계통별과정
2009.10.01

개인당최대 200만원 교육비지원

개강: Start! 10월 1일

중형IT직업전문학교
223-0050

원어민 1:1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배우십시오

20년 교육부 한국인 TOEFL, 토플시험 대비
중주유니버시티외국인말어배우기
미수 배정 EPO 외국인 경력직 찾아주기

070-7433-8594

용은위지(역원가)

임대

100평 110평 110평 80평

중 앙 B/D

222-4560
011-666-0229

김재규경찰학원의
합격 신호는
계속됩니다!

김재규

김주김재규경찰학원